

## 거주시설 성인 지적장애인의 일상에 관한 연구

-생활시간조사를 활용한 일상생활활동과 상호작용 분석을 중심으로-

김 미 옥<sup>+</sup>

(전북대학교)

김 고 은

(이화여자대학교)

### [요 약]

본 연구는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성인 지적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24시간을 관찰·기록하는 생활시간조사방법을 활용하여 거주시설 지적장애인의 일상생활활동과 그 안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생활시간연구방법 중에서는 시간수지연구방법 중 '활동의 빈도'와 생활시간 중 '생활'에 초점을 맞추는 방법을 활용하여 내용 분석하였다. 거주시설 지적장애인의 일상생활 분석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생활시간조사 행동분류표(2004)를 기준으로 하여, 거주시설 일상생활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상호작용 분석은 Flanders(1963)의 언어 상호작용분석모형을 기초로, 지적장애인과 생활재활교사의 상호작용 정도, 유형 등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국내 최초로 거주시설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있는 그대로 조명하여 그들의 일상에 대한 이해를 심층적으로 구축하고, 이용자와 생활재활교사의 상호작용을 분석한 점, 생활시간조사방법을 적용한 점 등에 그 의의가 있으며, 향후 관련 연구의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본다.

주제어: 장애인거주시설, 지적장애인, 이용자, 일상생활, 상호작용, 생활시간조사

### 1. 연구의 필요성

흔히들 거주시설은 다르다고 생각한다.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다르고, 그 안에서의 일상생활이 다

+ 주저자

르고, 그 안의 모든 것이 다를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들이 있다. 이 연구는 과연 다른가? 장애인거주시설 안에서 일상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 안에 어떠한 같음과 다름이 존재하며, 서로 상호작용 하는가를 알아보고자 한 것이다.

장애인거주시설은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지관을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하는 시설을 말한다(장애인복지법, 제48조). 가정에서의 욕구가 제대로 충족 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집단 보호와 치료를 목적으로 설치된 장애인 거주시설은 총 715개소(조건부 신고시설 포함: 2007년 11월 기준)이며, 입소인은 총 24,100명으로 2006년 추정장애인구 2,325천명의 1.03%에 해당한다(보건복지가족부, 2007). 장애 유형별로는 지적 장애인시설이 가장 많고, 다양한 주거형태 중 하나로서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다.

그동안 거주시설은 대규모 시설확충정책의 폐해, 열악한 주거환경 등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보건복지가족부(2007)는 '마지막 거주지에서 긍정적 선택지로'라는 비전을 기초로, 소규모 거주시설로의 전환과 서비스 기준의 명확화, 이용자과 공급자의 선택권 강화 등을 주요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추진 중이다. 따라서 장애인거주시설은 그 어느 관련기관보다도 더 역동적인 변화의 기로에 서있다고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정책동향이 변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들은 소수이며, 일부주제에 국한된 모습이 관찰된다. 우선, 선행 연구들 중 다수는 장애인거주시설의 문제점을 밝히고 대안을 모색하는 연구(유병주, 2004), 서비스 및 이용자의 권리와 관련된 연구(김철수, 2005; 김미옥·정진경·김희성, 2008) 등이 주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장애인거주시설이라는 기관 혹은 그 안의 전문가들이 중심이며, 정작 그 안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조명은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이용자의 관점에서 그들이 당면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연구는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결과로, 최근 장애인거주시설과 관련된 쟁점들은 정책과 관련된 큰 틀의 설정에 주로 초점이 놓여 있으며, '지금 현재' 거주시설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충분히 연구되고 있지 못하다. 즉, 장애인거주시설의 주체인 이용자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로 부터 출발해야 할 기초선에 대한 정제된 고찰이 부재하여, 보다 정교한 대응방안이 미흡한 것이다. 따라서 정책의 큰 방향은 있으나, 세부적인 과제 및 개입 방안 등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제기로부터,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의 24시간을 기록하여 분석하는 생활시간조사방법을 활용하여 시설 장애인의 일상과 그 안에서 나타나는 생활재활교사와의 상호작용 특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일상생활과 함께 특히 상호작용을 살펴본 것은 상호작용이 일상생활의 주된 활동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특히, 집단 거주 환경에서 생활재활교사와 이용자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은 거주시설 지적장애인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 연구는 국내 최초로 시설 장애인의 일상을 있는 그대로, 그들의 관점에서 서술 관찰하여 일상적 삶 및 상호작용에 대해 그 이해가 깊어질 수 있도록 한 점, 새로운 연구방법의 적용 시도 등에서 그

의의가 크다. 무엇보다도, 시설장애인의 일상생활 분석을 통해 비장애인과 다르며, 같은 일상을 보여 줌으로써,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시설 장애인들을 다시 한번 조명하고, 실제적이고, 섬세한 개입의 기초 자료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 2. 문헌고찰

### 1) 일상생활의 개념과 연구동향

일상생활 연구는 사회과학 영역에서 제기되었다. 초기 일상생활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적이며 사소한 일이라 여겨졌고, 자고, 먹고, 일하고, 쉬는 식의 단순하고 비슷한 일의 반복이라는 개념으로 생각되어 왔다(강수택, 1996: 1998). 그러나 점차 일상생활은 우리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속시키는 견고한 생활공간이며, 단편화 되어 있으면서도 총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세계로 인식되어(박재환·일상생활연구회, 2008), 최근에는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일상생활이란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상 세계로,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며 모든 이론과 실천이 지향되는 영역이다(Pred, 1979; 이철우·김은숙, 1997). 일상생활 속에서 인간의 활동과 생활양식은 무의식적이며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되어 성찰이 이루어지지 않는 특성이 있다(김현정, 2003). 이에 일상생활에 관한 연구는 습관적이고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삶의 방식들에 숨어 있는 복합적이고 심층적인 의미를 읽어내고 그것의 현재적 쟁점을 성찰하도록 해준다(정수복, 1996). 또한 보통 사람의 일상생활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고 그 의미를 강조함으로써 참여자 스스로의 관점에서 파악하려 하는 점에도 의의가 있다(Turner, 1991).

일상생활활동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활동연구는 생활시간연구, 활동패턴연구, 활동주의적 접근 방법에 대한 연구로 분류할 수 있다(김현정, 2003). 그 중 일상생활 활동을 가장 실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연구가 생활시간연구로 시간배분연구(time allocation study)와 시간수지연구(time budget study)로 나누어진다. 시간배분연구는 인간이 한정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시간의 배분과 연속성에 대한 조사를 말한다. 시간수지연구는 활동의 시간적 위치, 빈도, 연쇄, 그리고 연속성에 대한 연구이다. 일반적으로 특정한 기간 즉, 가장 전형적인 시간규모는 24시간의 하루로, 하루 동안 개별인간에 의해 수행되는 활동의 연속과 지속에 대한 일지 또는 일기라고 할 수 있다(Parkes and Thrift, 1980; 이철우·김은숙, 1997).

한편, 박영도·은기수·박수미·김복수·오만석·김정석·이윤석(2005)는 생활시간 연구를 할 때, 크게 두가지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하나는 생활시간의 '생활'에 초점을 맞추는 접근으로, 여러 항목들 사이로 시간이 양적으로 분배되는 패턴을 밝히고 이를 노동시간, 여가생활, 소비생활 등의 측면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삶의 구조적 특징을 포착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생활시간의 '시간'에 초점을 맞추어 일상생활 시간 분배 유형이나 양식 속에 담겨 있는 시간구조나 시간도식, 시간

이해 방식의 특징을 살펴보는 접근을 들 수 있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일상생활 초기의 연구들은 개인의 경험과 관찰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졌다. 이 후 점차적으로 노동자나 전업주부, 노숙자, 미혼 여성 등의 사회계층이나 성(gender) 관점에서(박순호·김은숙, 1998; 강수택, 1996) 그들의 구체적인 삶을 통해 일상성의 의미를 발견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대표적인 일상생활 연구인 한국인의 일상생활 조사는 한국인의 하루 24시간의 활동을 파악하여 생활패턴 등을 밝혀내었고, 이 외에도 노인, 아동, 학생, 부부 등 다양한 대상별 특성들을 밝히는 연구들이 있다(박수미, 2007; 최남숙·유소이, 2002).

그러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그들의 일상생활을 살펴보고 생활 속에 나타나는 특성과 의미를 살펴본 연구들은 매우 부족하다. 국외의 연구로는,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장애인들의 하루 일과 경험을 밝힌 Wilhite(1994)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장애를 가진 노인들의 하루 생활경험이 평범하지만 고독감, 외로움, 소외감 등을 느낀다고 보고한다. 또한 Forrester-Jones 외(2002)는 병원에서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하루 일과 중 가장 선호하는 활동은 야외활동, 학습, 일, 휴식과 여가임을 제시하였고 가장 싫어하는 활동은 허드렛일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임을 보고하고 있다. 장애인 당사자는 아니지만 장애아동 부모의 하루일과를 살펴본 Seltz 외(2009)의 연구에서는 장애아동의 부모들이 비장애아동 부모와 유사한 패턴으로 매일의 시간을 사용하지만 매일의 사건에서 스트레스 수준이 더 높음을 밝혀내었다. 국내 연구로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기록된 1년 동안의 일상생활 기록을 분석하여 이용자들의 특이행동과 행동 중재의 특성을 조사한 연구(서경희·변찬석·전현선·진홍신·신윤희·최미향, 2004), 생활시간조사표를 통해 장애아동 어머니가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살펴 본 연구가 있다(장혜경·홍승아·이상원·김영란·강은화·김고은, 2006).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인터뷰나 기록 조사를 통해 일상생활의 특정 일부분에 초점을 두고 탐색한 제한점이 있다.

Mead는 인간의 삶의 실제란 '현재와 여기'의 관점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보아야 함을 강조한다(강수택, 1996, 재인용). 일상생활 연구는 일상생활의 반복성과 단순함 이면에 있는 일상생활 내부에 존재하는 다양성의 모습을 파악하고 그 속에 숨어 있는 질서, 규칙 등에 대한 관심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박영도 외, 2005). 이러한 측면에서 현시점에서 거주시설 장애인들의 삶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현재 살고 있는 시설에서의 일상생활에 대한 이해와 분석이 매우 필요하다. 일상생활 연구는 한 개인의 일상생활을 통합된 하나의 총체적 단위로서, 그리고 사회의 모든 활동의 중심영역으로 다루고자 하기 때문에, 그 이면에 숨어있는 질서, 규칙들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한 개인을 총체적 시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따라서 시설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행위자들인 장애인들의 삶의 모습을 관찰함으로써 이들의 습관적 삶의 방식의 형태와 의미를 살펴보는 것은 거주시설 장애인 이해를 위해 매우 중요한 기초 작업이 될 것이다.

## 2) 상호작용의 개념과 연구동향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활동은 상호작용의 연속이다. 사전적인 의미에서 상호작용은 유기체가 사물이거나 사람과 주고 받는 언어적·비언어적 행동이며, 진정한 의미에서 상호작용은 대인관계 속에서 서로

의사소통을 할 때 상호작용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김민혜, 1990). 상호작용은 참여자의 인지·정서·심리·신체적 반응을 수반할 수 있기 때문에(윤혜성, 2008) 관계에 있어서 상호작용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거주시설에서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은 생활재활교사와의 상호작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생활재활교사와의 관계는 거주시설 장애인의 삶의 질에 매우 중요하며(오세란, 2005), 그 누구보다도 매일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는 주로 교육학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일반교육학 분야에서는 오래전부터 교사와 아동간의 상호작용 특성을 연구 주제로 삼아왔으며,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새로운 교수방법을 개발하는데 사용하였다(Blatt, Confessore, Kallenberg, and Breenbers, 2008; Shores, Jack, Gunter, and Ellis, 1993). 교사와 아동간의 상호작용은 학습의 질을 결정하고 성공적인 수업전략을 세우는데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본 것이다(Chatherine, 2001). 특수교육학에서도 교사의 긍정적이고 무비판적이며 즉각적인 반응의 상호작용들은 장애아동의 언어 발달, 공격성 감소, 또래와의 상호작용 증진 등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고하여 장애아동과 교사의 상호작용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Alexander, 1998; 신현기, 2003).

한편, 상호작용 연구를 통해 교사들의 상호작용 행동을 분류하기도 한다. 초기의 연구에서는 교사의 상호작용 행동을 지배적인 것과 통합적인 것으로 구분하였다. 통합적인 행동이란 학생의 개인차를 받아들이고, 교사의 요구를 학생에게 의미있게 설명함으로써 학생이 자진해서 협동할 수 있도록 상호작용하는 행동을 말한다. 지배적인 행동은 강제, 명령, 권위, 비난, 위협, 모욕, 공격적으로 학생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의미한다(Anderson, 1939, 이명신, 2003, 재인용). 그 이후로도 여러 학자들에 의해 상호작용 유형들이 구분되고 있는데, 큰 맥락에서 살펴보면 지배적·전제적·배제적·교사 중심적의 '지시적이고 제한적인 상호작용'과 통합적·민주적·포용적·학생 중심적의 '비지시적이고 권장적인 의사소통'의 두 가지이다(김민혜, 1990). 다수의 연구들에서 비지시적이고 권장적인 의사소통을 사용하여 수업을 진행할 때에 학습의 분위기와 학생의 학업성취, 상호 관계적인 면에서 효과적이라고 보고하고 있다(Offir, Barth, Lev, and Shteinbok, 2005; 노경주, 1999). 이러한 상호작용의 형태를 분석하는 방법은 내용 분석과 형태적 분석이 주로 사용된다(김중서, 1980). 형태적인 면은 다시 교사와 학생의 언어 상호작용 분석법(verbal interaction analysis)과 비언어 상호작용 분석법(non-verbal interaction analysis) 그리고 실험, 실습, 연습, 토의 등과 같은 작업분석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중에서 Flanders(1963)가 연구하고 발표한 언어 상호작용 분석법(The Flanders Category System)이 가장 주목받고 수업형태를 분석하는데 많이 활용되고 있다(김중서, 1980). Flanders는 수업형태에서 상호작용적 언어가 가장 중요한 매체라고 하면서 언어적 상호작용 형태를 크게 지시적인 것과 비지시적 것으로 나누었다. 지시적 상호작용은 지배적, 전제적, 교사중심적, 배제적, 제한적인 의사소통의 특성을 가진 것으로, 비지시적인 상호작용은 통합적, 민주적, 학생 중심적, 포괄적, 권장적 의사소통의 특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하였다(김중서, 김영찬, 1970). 따라서 이러한 분류 기준에 의하여 수업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재해석하려고 하였고 그 결과가 수업자에게 확인되고, 행동을 고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김중서, 1980). Flanders의 상호작용 분류(표 1)에 의하면 언어적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교사의 발언, 학생의 발언, 교사도 학생도 말이 없는 침묵이나 혼동의

세부분으로 구분하고 있다.

<표 1> Flanders(1963)의 언어적 상호작용 분류

구분	내 용
교사의 발언	1. 느낌을 받아들이는 것 : 공포가 없는 상태에서 학생들의 느낌을 받아들이고 명백히 한다. 느낌은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다. 예언이나 회상의 느낌도 포함한다. 2. 칭찬 혹은 권장 : 학생 행동을 칭찬하거나 권장하는 것, 다른 학생을 회생시키는 일이 없는 긴장을 풀기 위한 농담,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으음', '으음' 하거나 '계속해' 등도 포함됨. 3. 학생의 생각을 받아들이거나 이를 이용하는 것 : 학생이 말한 생각을 명백히 하거나 도와주거나 발달시키는 것 4. 질문 : 학생이 답변할 것을 기대하는 내용이나 절차에 대한 질문
	5. 강의 : 내용이나 절차에 대한 사실이나 의견을 말하는 것 6. 지시 : 학생이 복종할 것을 요구하는 지시나 명령 7. 비난 혹은 권위를 부리는 것 : 좋지 못한 학생의 행동을 좋은 행동으로 바꾸기 위한 교사의 말, 교사가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이유 설명, 극단적인 자기 자랑
학생의 발언	8. 학생의 반응적인 말 : 교사의 단순한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단순 답변, 학생이 답변하도록 교사가 먼저 유도함 9. 학생의 자발적인 말 : 학생이 자진하여 말하는 것, 교사의 넓은 질문에 대하여 학생이 여러 가지 생각, 의견, 이유 등을 말하는 것
기타	10. 작업, 침묵이나 혼동 : 실험, 실습, 토론, 책읽기, 머뭇거리는 것, 잠시 동안의 침묵 및 관찰자가 학생간의 의사소통 과정을 이해 할 수 없는 혼동의 과정

자료: 김종서(1980). 교수과정의 분석. p. 96-97.

학교나 교실 세팅과는 차이점이 있지만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사회복지사와 이용자들이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 있다. 특히 시설 이용자들은 하루 일과 내내 생활재활교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 양자의 상호작용 및 영향에 대해 인식할 필요가 있다. 상호작용은 개인의 가치나 인지·심리적·신체적인 반응들을 수반할 수 있기 때문에(윤혜성, 2008) 사회복지사가 이용자를 대하는 태도나 장애인에 대한 가치를 반영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거주시설에서 장애인들의 일상적인 활동들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을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 있다. 특히 언어적인 제약이 있고 인지능력의 저하를 보이는 지적장애인들에게는 생활재활교사와의 상호작용이 더욱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상생활분석과 함께 상호작용을 살펴봄으로써 거주시설 안에서의 일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 3. 연구방법

#### 1) 연구참여자

본 연구는 전국 장애인거주시설에 공문을 발송하여 연구의 취지 및 내용을 설명하고, 본 연구에 참

여를 희망하는 기관을 모집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종 19개의 기관 및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이 19개 기관에서 장애정도에 따라 각각 3명을 선정하고, 이 3명에 대한 하루일과를 조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참여자는 총 57명이며, 장애정도별로는 경증 19명, 중증 19명, 최중증 19명이었다. 장애정도에 대한 판단은 각 기관의 사정평가를 통해 기관별로 기능상 상위 10% 이내의 이용자를 경증, 중위 50% 정도의 이용자를 중증, 하위 10% 이내의 이용자를 최중증으로 선정하였다.

〈표 2〉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 빈도(명), 비율(%)

구분	성별		평균 연령	장애유형			직업형태			
	남	여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중복 장애	무직	보호 작업장	외부 직장	학생
전체 (n=56)	24 (42.9)	32 (57.1)	29.9	54 (96.4)	1 (1.8)	1 (1.8)	38 (67.9)	11 (19.6)	4 (7.1)	3 (5.4)
경증 (n=18)	10 (55.6)	8 (44.4)	28.1	17 (94.4)	-	1 (5.6)	8 (44.4)	5 (27.8)	4 (22.2)	1 (5.6)
중증 (n=19)	6 (31.6)	13 (68.4)	30.5	18 (94.7)	1 (5.3)	-	14 (73.7)	4 (21.1)	-	1 (5.3)
최중증 (n=19)	8 (42.1)	11 (57.9)	31.1	19 (100)	-	-	16 (84.2)	2 (10.5)	-	1 (5.3)

\* 자폐성장애와 중복장애 역시 지적장애를 동반함

본 연구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이 42.9%, 여성이 57.1%였고 장애유형은 대부분 지적장애였으며 평균연령은 29.9세로 나타났다. 직업형태를 살펴보면, 장애정도별로 차이가 나타나는데 경증의 경우는 무직이 44.4%, 보호작업장 이용이 27.8%, 외부 직장에서의 근무가 22.2%로 절반정도의 수준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중증이나 최중증의 경우는 외부 직장에서의 근무하는 이용자가 없고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중증이 21.1%, 최중증의 10.5%로 조사되었다.

## 2) 자료구축과정

일상생활에 대한 연구는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가능하다(박재환·이상훈 역, 1997). 본 연구에서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용자들의 일상생활을 살펴보기 위해, 생활시간 연구 방법 중 시간수지연구 방법의 '활동의 빈도'(Parks and Thrift, 1980; 이철우·김은숙, 1997) 및 생활시간의 '생활'(박영도 외, 2005)에 초점을 맞추어 삶의 구조적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러한 방법을 선택한 것은 시설 거주 이용자의 24시간을 관찰하되, 이용자의 일상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이다. 또한 연구자의 직접관찰

1) 본 연구에 참여한 총 대상자수는 57명이다. 그러나 경증 장애인 한명이 본인의 개인적 정보를 밝히는 것을 원하지 않아 인구사회학적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 아닌 훈련된 각 기관의 담당자를 선정하여 기록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자료의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이 방법을 선택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되어, 거주시설의 일상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구체적으로 생활시간조사는 시간일기(Time Diary) 방법에 의해 정보가 수집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응답자들이 자신의 언어로 직접 24시간 동안 행한 활동을 기입하는 방법으로 수행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지적장애의 특성상 본인이 직접 기록하기보다는 생활재활교사와 사회복지사가 함께 관찰·기록하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기간은 2008년 6월 4일부터 6월 25일까지 이루어졌고, 정확한 조사를 위해 19개 기관의 기록담당자를 대상으로 3차례의 워크숍과 카페를 개설하여 수시로 연구진과 의사소통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자료를 얻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기록의 누락 방지와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대상자와 상호작용을 많이 하는 생활재활교사 혼자서 직접 기록하는 형태가 아니라 1차로 이들을 근접하여 관찰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가 1차 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생활재활교사가 보완하는 형태를 활용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활용한 것은 직접 상호작용하는 생활재활교사가 보지 못하는 부분을 참여관찰자로서 사회복지사가 찾아낼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sup>2)</sup>. 또한 이용자와의 상호작용과 관련된 생활재활교사의 행동을 정확히 관찰 기록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와 같은 형태의 방법을 적용하였다. 시간일기의 작성일은 평일 중 그 이용자의 일상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하루를 정하여 그 하루치를 기재하도록 하였다. 즉, 하루 동안에 이용자가 기상한 시간부터 취침한 시간까지의 모든 행동을 관찰하여 이용자의 행동과 이용자와 생활재활교사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을 최대한 자세히 기재하도록 하였다.

###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틀은 통계청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2004 생활시간조사』에서 사용한 “생활시간조사 활동분류표”를 기준으로 하였다. 생활시간조사는 전국의 약 12,750 표본가구의 31,634명을 대상으로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활용한 것으로 1999년 1차 시간분석을 시작으로 5년 간격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2009년도 국민 생활시간조사를 시행중이다. 본 연구에서 2004 생활시간 조사를 선택한 것은 일반 국민들의 하루 일과를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이러한 분석틀이 거주시설 장애인들의 삶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보았다. 2004 생활시간조사 행동분류표는 모든 행동이 9개의 대분류, 50개의 중분류, 137개의 소분류로 정리되어 있다. 9개 영역은 개인유지, 일, 학습, 가정관리, 가족보살피기, 참여 및 봉사활동, 교제 및 여가활동, 학습, 이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는 이 분류표에 기준하여 내용분석을 실

2) 참여관찰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사실들 까지도 직접 경험할 수 있고, 자연적인 상태를 생생하게 관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읽거나 쓸 수 없는 등 의사소통이 어려운 대상자에게서도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참여관찰은 총체적인 시각으로 다양한 자료를 획득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의 관찰을 통해 통찰력 있는 이해를 도출할 수 있다(박재환·일상생활연구회, 2008).



시하였다.

내용분석이란 질적 내용을 양적 자료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사례기록, 과정기록, 신문, 사설, 논문 등의 이용 가능한 기록을 분석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이다. 또한 잘 알려지지 않은 사회현상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성숙진·유태균·이선우 역, 1997). 일반적으로 내용분석을 위한 단위로는 단어, 주제, 인물, 문단, 항목, 개념, 의미 등이 쓰이는데(Weber, 1990), 본 연구는 내용분석법 중에서도 조사대상자들의 진술내용에 전형적으로 등장하는 단어와 의미들을 부호화하고, 이에 대해 해석하는 방법을 시도하였다. 따라서 생활기록 일지를 내용단위(content unit)로 선택하여 하루일과에서 나타나는 활동과 상호작용 등을 발견할 수 있었다. 내용분석은 일반적으로 텍스트로부터 추론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반복 가능성을 강조함으로써 연구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때문에(Krippendorff, 2004), 연구자들이 범주화 단계에서 각각 코딩을 한 후 그 결과를 비교하여 합의하는 검증을 실시함으로써, 분석결과에 정확성을 기하고자 하였다.

## 4. 연구결과분석

### 1)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의 일상생활 활동

#### (1) 장애인거주시설의 '같은' 일상생활 활동

거주시설 장애인의 일상생활활동을 살펴본 결과는 <표 3> 과 같다. 거주시설 장애인의 평일 일상생활활동의 총량은 경증 이용자 601건, 중증 이용자 676건, 최중증 이용자 716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증, 중증 장애인의 경우 출퇴근으로 인해 시설 외부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거주시설 내에서는 최중증 장애인의 일상생활 활동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후속연구에서는 경증 장애인의 출근부터 직장에서의 일상생활 등도 통합적으로 관찰되기를 기대한다.

구체적으로, 거주시설에서의 일상생활은 개인유지를 위한 활동건수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 교제 및 여가활동, 가정관리의 순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었다. 또한 장애정도가 심해질수록 개인유지나 기타 활동 등의 건수가 많고 일이나 가정관리, 동료보살피기, 교제 및 여가활동의 건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장애인의 생활시간과 비교<sup>3)</sup>해 본 결과, 경증장애인은 개인유지에 각각 비장애인 43%, 장애인 42.6%로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여가활동 역시 유사한 비율을 보여주었다. 장애정도가 심해질수록, 개인유지에 사용하는 시간은 증가하고, 교제 및 여가활동 영역은 감소하여, 비장애인의 일상생활

3) 비장애인의 일상생활활동 분석은 '2004 생활시간조사'시 일상생활활동 '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비장애인의 일상생활활동은 개인유지(43%), 일(19%), 학습(1%), 가정관리(7%), 가족보살피기(2%), 참여 및 봉사활동(0%), 교제 및 여가활동(20%), 이동(7%), 기타(1%)로 구분된다. 본 연구는 일상생활활동을 '사건의 빈도'로 분석한 것으로 분석 단위의 차이로 인한 한계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율을 통한 단선적 비교에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여 비장애인과의 비교 결과를 제시하였다.

과는 다른 모습들이 관찰되었다. 따라서 장애정도가 일상생활활동의 영역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표 3〉 장애인거주시설의 일상생활활동

단위 : 빈도(건), 비율(%)

분류	경증		중증		최중증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개인유지	256	42.6	299	44.2	369	51.5
일	10	1.7	2	0.3	0	0
학습	10	1.7	9	1.3	14	2.0
가정관리	83	13.8	112	16.6	44	6.1
동료보살피기 <sup>4)</sup>	10	1.7	0	0	0	0
참여 및 봉사활동	27	4.5	13	1.9	3	0.4
교제 및 여가활동	112	18.6	118	17.5	74	10.3
이동	39	6.5	53	7.8	54	7.5
기타	53	8.8	70	10.4	156	21.8
합계	601	100	676	100	716	100

장애인거주시설의 일상을 『2004 생활시간조사』의 필수생활, 의무생활, 여가생활 분류<sup>5)</sup>에 따라 시설장애인의 하루 일과를 분류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필수생활은 경증의 경우 하루 일과의 50.4%, 중증이 54.1%로 절반정도의 양을 차지하였고 최중증의 경우는 73.2%로 매우 높은 빈도로 나타나서 개인유지를 위한 활동이 하루의 주일과 임을 알 수 있었다. 의무생활은 경증과 중증이 22.2%, 최중증의 경우 11.5%로 나타나 시설장애인들이 일이나 학습 등에서 비장애인<sup>6)</sup>에 비해 적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장애가 심할수록 의무생활의 빈도수가 낮아졌다. 여가생활의 경우도 경증, 중증 27.4%, 23.7%인 것에 비해 최중증은 15.3%로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에 비해 일이나 학습, 가정 관리 등의 의무적인 일 등에 참여하는 빈도수가 낮고 장애 정도가 심할수록 식사나 세면, 화장 등의 필수생활 활동을 많이 하며, 여가생활 활동량은 적게 나타나 거주시설에서의 단순한 일과를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비록 단체생활, 장애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나, 경증 장애인의 경우 유사한 비율을 보여주는 영역이 더 많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거주시설 장애인의 장애정도에 따라 고용 등을 통한 의무생활시간, 최중증의 경우 여가생활의 시간을 늘리는 방안 등 비장애인과 유사 영역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는

4) 『2004 생활시간조사』의 “생활시간조사 활동분류표”에는 가족보살피기로 되어 있으나 시설 특성상 함께 거주하고 있는 동료보살피기로 바꾸어 분석하였다.

5) 필수생활이란 개인유지를 위한 시간으로 수면, 식사 및 간식, 목욕, 화장 등을 하는 시간을 말한다. 의무생활이란 의무적인 활동을 위한 시간으로 일, 학습, 가정관리, 가족보살피기, 이동 등의 시간을 말하며, 여가생활이란 개인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시간으로 참여 및 봉사활동, 교제 및 여가활동 등의 시간을 말한다(통계청, 2005).

6) 비장애인의 하루 생활을 살펴보면, 필수생활 시간이 하루 일과의 43.1%, 의무생활시간이 33.6%, 여가생활시간이 21.8%로 나타났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표 4〉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의 필수생활, 의무생활, 여가생활 활동

단위 : 빈도(건), 비율(%)

분류	경증		중증		최중증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필수생활	256	50.4	299	54.1	369	73.2
의무생활	113	22.2	123	22.2	58	11.5
여가생활	139	27.4	131	23.7	77	15.3
합계	508	100	553	100	504	100

## (2) 장애인거주시설의 '다른' 일상생활 활동

〈표 3〉에서 기타 일상생활이란 『2004 생활시간조사』에서 사용한 “생활시간조사 활동분류표”에 의해 분류되지 않은 행동이다. 장애정도가 심할수록 이 영역의 비율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첫째, 시설이라는 단체생활의 특성으로 인한 활동들이 있었다. 예컨대, 전체적으로 생활재활교사나 자원봉사자, 다른 이용자와 인사를 하는 활동이 매우 많이 나타나고, 경증 이용자의 경우는 다른 이용자(중증)를 돌보는 과정에서 다툼이나 신경질을 부리는 활동들이 분석된다. 또한 교사에 대하여 일상적인 대화의 형태와는 다른 대화 활동이 나타난다. 이는 지속적으로 교사의 관심을 받으려 하거나 자신의 행동이나 상황에 대해 교사에게 확인을 받으려는 활동들인데 이용자들이 개인적인 활동을 할 때마다 일일이 교사에게 허락이나 약속을 받아 내거나 질문을 하는 행동들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이용자들의 특이행동과 관련된 활동들이 주를 이루는데 장애가 심해질수록 혼자 서성거리거나 혼자 말을 하는 등의 활동이 많고, 신경질을 내거나 감정조절이 안되는 등의 행동을 보여준다. 또한 자기관리나 일상생활에서의 문제행동을 보이고, 틱이나 자폐성향 등의 장애로 인한 행동들이 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특이행동과 이에 대한 교사의 중재행동을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일반 가정과는 다른 거주시설 및 장애의 특성으로 인한 일상생활활동의 모습들을 볼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

### ① 거주시설 이용자의 특이행동

이용자의 특이행동이란 평소와 다른 특이한 행동이나 감정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주로 일상생활에서 장애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행동들을 말한다(서경희 외, 2004). 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의 24시간 하루 일과 중 특이행동의 빈도는 〈표 5〉와 같이 나타났다. 전체 일상생활활동 중 14.2%가 특이행동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장애정도별로 살펴보면 경증 4.5%, 중증 10.9%, 최중증 25.5%의 특이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정도가 심할수록 특이행동의 빈도가 많았다.

7) 장애인거주시설의 일상생활활동에서 특이하게 관찰되는 활동들을 무엇으로 명명해야 할지 매우 어려웠다. 여러 용어들이 검토되었으나, 최종적으로는 특수교육학에서 사용되는 특이행동과 중재행동이라는 용어를 선택하여 제시하였다.

〈표 5〉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의 특이행동 분포

단위 : 빈도(건), 비율(%)

구분	전체		경증		중증		최중증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특이행동	284	14.2	27	4.5	74	10.9	183	25.5
일상생활 활동(전체)	1,993		601		676		716	

시설거주 이용자의 특이행동을 영역별로 살펴본 결과는 〈표 6〉과 같다. 분석결과 총 5개 영역에서 특이행동이 나타났다. 즉, 건강, 섭식, 수면, 배변, 행동 영역이 그것이다. 이 중 행동영역이 45.9%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건강 25.3%, 섭식 11.2%, 배변 9.5%, 수면 8.1% 순이었다. 장애정도별로 살펴보면, 경증의 경우는 건강이 49.1%로 가장 높은 특이행동을 보였고 행동 영역에서도 38.2%를 나타냈으며 섭식, 수면 순으로 나타났다. 중증의 경우도 건강이 37.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행동도 31%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수면, 섭식, 배변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중증의 경우는 경증, 중증과 다르게 행동적인 면이 53%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건강 16.9%, 배변과 섭식이 11.5%, 수면 7.1%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따라서 장애정도별로 특이행동의 영역이 다름을 관찰 할 수 있었다.

각 영역별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건강과 관련된 특이행동으로는 대부분 약 복용을 많이 하고 있고, 간질증세를 보이기도 하였다. 장애정도가 심할수록 호흡곤란이나 체위변경, 혈당제나 인슐린 사용 등의 건강상의 행동을 보였다. 섭식 행동으로는 편식을 하거나 식사를 거부하는 행동 등을 보였고 건강문제로 인한 식이요법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장애정도가 심할수록 식사속도나 양의 조절, 식사 기구의 이용, 스스로 식사하기 어려움 등의 특이행동을 나타냈다. 배변과 관련해서는 중증의 경우는 배변 후 처리가 미숙한 행동들을 보였고 최중증의 경우는 대부분 기저귀를 이용하였으며 옷에 배변을 하거나 배변을 가지고 장난치는 등의 특이행동이 나타났다. 수면행동은 낮잠을 자거나 기상을 못하는 등의 행동이 나타났고 장애정도가 심할수록 수면 중 돌아다니거나 뒤척이는 모습 등을 나타냈다. 행동영역과 관련하여서는 경증 이용자의 경우는 다른 이용자를 돕는 과정에서 화를 내는 모습을 보였고, 말다툼을 하거나 혼잣말을 하는 등의 행동을 보였으며 생활재활교사에게 계속적으로 확인을 받으려는 모습을 보였다. 중증 이용자의 경우는 계속 옷거나 손톱을 물어 뜯는 행동, 공격적인 행동, 감정 조절이 어려운 행동이 나타났다. 최중증 이용자의 경우는 일상생활과 관련된 행동에서 미숙한 모습이 나타났고 침을 흘리거나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옷을 벗는 등의 모습과 대부분 서성이거나 혼잣말을 많이 하였고, 물건을 부수는 등의 공격적 행동과 흥분이나 집착, 틱 등의 특이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특이행동의 영역별 분포

단위 : 빈도(건), 비율(%)

영역	전체		경증		중증		최중증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건강	72	25.3	13	49.1	28	37.3	31	16.9
섭식	32	11.2	3	12.1	8	11.1	21	11.5
수면	23	8.1	1	0.6	9	12.4	13	7.1
배변	27	9.5	0	0	6	8.2	21	11.5
행동	130	45.9	10	38.2	23	31	97	53
합계	284	100	27	100	72	100	183	100

② 거주시설 종사자의 중재행동

거주시설 이용자들의 하루 일과를 관찰한 결과, 가장 많이 상호작용을 하는 사람은 생활재활교사였다. 이들은 이용자들의 특이행동 뿐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한 중재행동을 하고 있었다. 중재행동이란 이용자들의 행동 중에서 강도, 빈도, 지속시간, 원인을 살펴본 결과, 전문가의 중재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행동을 말한다(서경희 외, 2004). 전체 하루일과 중 생활재활교사의 중재가 발생하는 활동의 빈도를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일상생활 활동 전체 중 중재행동은 666건으로, 33.4%가 생활재활교사의 행동중재가 발생하는 활동으로 나타났다. 장애정도별로 살펴보면, 경증 15.6%, 중증 34.7%, 최중증 47%로 장애정도가 심해질수록 전체 일상생활 활동량 중 교사의 행동중재가 발생하는 활동량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의 특이행동 활동과 〈표 7〉의 교사 중재행동의 빈도를 살펴볼 때, 이용자들의 하루일과 중 특이행동 이외의 일상생활 영역에서도 생활재활교사의 중재행동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최중증의 경우는 전체 일상생활 활동 중 절반 가까이 (47%)가 교사의 중재가 발생하는 행동으로 이용자들의 자율적인 생활보다는 교사의 중재행동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중재행동이 반드시 그 시점에서 필요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점검 혹은 장애인의 자기결정과 선택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한 연구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7〉 생활재활교사의 중재가 발생하는 활동

단위 : 빈도(건), 비율(%)

구분	전체		경증		중증		최중증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중재행동 전체	666	33.4	94	15.6	235	34.7	337	47.0
일상생활 활동(전체)	1,993		601		676		716	

중재행동은 구체적으로 행동중재와 의료중재로 구분하였다. 이는 장애의 특성상 하루 일과 중 특이행동, 약물복용 등에 대한 중재지원 활동 요청이 가장 높은 비율로 보고되기 때문이다(서경희 외, 2004).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재지원이 요청된 활동은 전체적으로 행동중재 89.6%, 의료중재 10.4%로 나타났다. 장애정도 별로 살펴보면, 경증은 행동중재 87.2%, 의료중재 12.8%, 중증은 행동중재 88.5%, 의료중재 11.5%, 최중증은 행동중재 91.1%, 의료중재 8.9%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부분 행

동중재가 발생하는 상황들이었고 10% 내외로 의료중재 활동들이 발생했다.

〈표 8〉 중재행동의 영역별 분류

단위 : 빈도(건), 비율(%)

구분	전체		경증		중증		최중증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행동중재	597	89.6	82	87.2	208	88.5	307	91.1
의료중재	69	10.4	12	12.8	27	11.5	30	8.9
합계	666	100	94	100	235	100	337	100

의료중재 활동들은 약 복용과 관련된 내용들이 주를 이루었고 감기나 통풍 등의 일반적인 병에 대한 중재활동도 나타났다. 또한 최중증의 경우는 체위변경, 석션, 튜브관 이용 등의 중재활동들이 있었다. 분석결과에서 경증의 의료중재 활동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경증 이용자들이 중증, 최중증과는 달리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해 생활재활교사에게 직접적으로 아프다는 의사표현을 하는 특성들을 살펴볼 수 있었다. 〈표 9〉에서와 같이 행동중재영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기관리 영역에서의 중재지원활동이 가장 많았고 섭식 및 편식지도에서 많은 중재활동이 이루어졌으며 중증은 일상생활 수행영역에서도 교사의 중재활동이 많이 있었다.

〈표 9〉 생활재활교사의 행동중재지원활동 영역

단위 : 빈도(건), 비율(%)

영역	전체		경증		중증		최중증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건강관리	5	0.8	1	1.1	2	0.9	2	0.6
수면	46	6.9	3	3.2	18	7.7	25	7.4
일상생활수행	59	8.9	7	7.4	37	15.7	15	4.5
자기관리	218	32.7	50	53.2	70	29.8	102	29.1
공격성	9	1.4	2	2.1	3	1.3	-	1.2
불안/분노발작	8	1.2	4	4.3	3	1.3	1	0.3
상답지도	2	0.3	2	2.1	-	-	-	-
섭식 및 편식지도	111	16.7	12	12.8	31	13.2	68	20.2
합구	1	0.2	1	1.1	-	-	-	-
양치질	51	7.7	-	-	20	8.5	31	9.2
주의산만	7	1.1	-	-	3	1.3	4	1.2
배변	47	7.1	-	-	4	1.7	43	12.8
문제행동	10	1.5	-	-	4	1.7	6	1.8
흥분	5	0.8	-	-	3	1.3	2	0.6
학습	10	1.5	-	-	6	2.6	4	1.2
신경질	2	0.3	-	-	-	-	2	0.6
의사소통	4	0.6	-	-	4	1.7	-	-
틱	2	0.3	-	-	-	-	2	0.6
합계	666	100	94	100	235	100	307	100

구체적으로 교사의 중재지원이 일어난 활동의 실제적인 예를 살펴보고자 정리한 결과의 일부를 제시하면, <표 10>과 같다.

<표 10> 영역별 중재지원 활동 내용 예시

영역	예시
신체이상 및 약복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열이 있어 물수건 찜질을 해주고 콧물이 있어 화장지를 옆에 가져다줌</li> <li>▪ 혈당체크기를 가지고 체크해줌</li> <li>▪ 의무실에 가서 인슐린 주사를 놓아줌</li> <li>▪ 체위변경을 해줌</li> <li>▪ 약을 잘 복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안약을 넣어줌</li> <li>▪ 몸이 어퍼냐고 물어보고 배가 많이 아프다고 하여 식전에 먹는 장염약을 복용하도록 함</li> <li>▪ 약봉지를 뜯어서 입에 약을 넣어줌</li> <li>▪ 기침이 심하고 호흡이 거칠어져 Suction을 함</li> </ul>
건강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트레칭을 하도록 언어적 지원을 함</li> <li>▪ 뒤에 서서 팔을 잡고 체조를 따라하게 함</li> <li>▪ 비만관리 활동으로 운동을 하지 않으려 하여 운동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봄</li> </ul>
수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직 일어날 시간이 아니라 더 잠을 자도록 불을 끄</li> <li>▪ 취침 시간에 자지 않고 계속 돌아다녀 함께 누워서 잘 수 있도록 지도함</li> <li>▪ 기상시간에 일어나지 않아 계속적으로 깨움</li> </ul>
일상생활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청소가 안되어 있어 잠시 정리할 것을 권유함</li> <li>▪ 화장실 청소를 꼼꼼히 하도록 언어적 지도함</li> <li>▪ 뒀은 후 걸레를 보여주어 비누로 깨끗이 빨아야 한다고 얘기함</li> <li>▪ 그릇을 씻으며 행구지 않고 물로만 대충 행구어 그릇을 씻으며 행구기를 권함</li> <li>▪ 함께 새마을금고로 가서 신체적 지원을 함</li> <li>▪ 계산대에 물건을 올려놓고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얘기함</li> </ul>
자기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사 전 스스로 손을 씻을 수 있도록 이유를 설명, 지도함</li> <li>▪ 프로그램 시간을 알려주고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줌</li> <li>▪ 낮 동안에 발에 땀이 많이 나서 냄새가 난다고 얘기해주고 발 씻고 양말을 세탁하도록 함</li> <li>▪ 손을 씻지 않아 주의를 주고 함께 가서 올바른 비눗칠 방법을 지도함</li> <li>▪ 혹시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프면 의료지원팀이나 직원을 찾으라고 당부함</li> <li>▪ 바지 단추가 잘 채워지지 않아 요청해서 어떻게 하는지 보여줌</li> <li>▪ 몸을 잘 닦았는지 확인하고 샤워시 배와 팔 부분만 닦아 직접 지원함</li> <li>▪ 옷을 갈아입지 않아 다른 생활인을 시켜 옷을 갈아입도록 방으로 데려가게 함</li> <li>▪ 옷에 배변을 하여서 화장실로 데려가 씻긴 후 바지, 팬티, 기저귀를 갈아입힘</li> </ul>
공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옆 동료를 주먹으로 밀쳐내고 싸워서 원인을 물어보고 서로 화해하도록 함</li> <li>▪ 옆 이용자와 계속 부딪히며 말다툼을 하고 욕을 하여 하지 못하도록 언어적 지원함</li> </ul>
불안/분노 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턱을 하면서 옆 사람이 다리를 잡고 흔들자 분노 발작하여 제지함</li> <li>▪ 팔을 세계 흔들며 발을 세계 구르고 창문, 벽을 치며 소리를 질러 격리시킴</li> </ul>
상담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들과의 의견충돌로 힘들다고 얘기해서 그건 당연하고 서로 이해하고 맞추어가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얘기해줌</li> </ul>
섭식 (편식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야채를 먹으려하지 않아 골고루 먹도록 언어적 지원을 하고 먹을 만큼 음식을 그릇에 담아 남기지 않고 먹을 수 있도록 지도함</li> <li>▪ 참외를 씹지 않고 삼켜 씹어서 섭취하고 천천히 먹도록 반복적으로 이야기함</li> <li>▪ 황급하게 먹고, 밥, 국, 반찬 따로 먹어 천천히 같이 먹도록 지도함</li> <li>▪ 교사가 직접 양손을 붙잡고 먹는 방법을 알려주고 스스로 먹어보도록 함</li> <li>▪ 손을 잡고 밥을 먼저 먹고 반찬 쪽으로 손가락을 가져가도록 함</li> </ul>

〈표 10〉 이어서

함구	▪ 계속적으로 말을 하지 않고 의사표현을 하지 않아 혼자 있도록 지도함
양치질	▪ 칫솔에 소량의 치약을 발라 적정량의 치약을 짜주며 바르게 양치하도록 지도함 ▪ 치약사용량이 많아 적당량 사용하도록 지원함 ▪ 직접 양치질을 해줌
주의산만	▪ 계속 복도와 방안을 혼자 돌아다녀서 같이 책을 보자고 함 ▪ 옆 생활인들이 방해되도록 계속 방을 기웃거리며 서성거리려 제지를 함
배변	▪ 소변을 보도록 변기에 앉혀줌 ▪ 기저귀를 채워줌 ▪ 생리대 가는것을 권유하고 직접 도와줌 ▪ 대변을 본 후 뒷처리를 해줌
문제행동	▪ 자폐성향으로 동료들과 어울리지 못해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이야기함 ▪ 혼자 있는 시간에 손가락 빠는 행동을 계속하여 빨지 못하도록 지도함 ▪ 계속 가글 소리를 내면서 방을 돌아다녀 하지 못하도록 지도함
흥분	▪ 계속 소리 지르고 웃으며 노래 부르며 뛰어다니는 행동을 하여 제지함 ▪ 소리 지르고 뛰는 행동을 보여 팔을 잡고 옆에서 계속 동행함
학습	▪ 글을 읽지 못하여 설명을 해줌 ▪ 다양한 색깔과 모양을 인지하도록 지도함
의사소통	▪ 질문에 단어로 대답해 모방에 의해 문장으로 답할 수 있도록 지도함 ▪ 발성장애로 낮은 목소리로 읽으며 쓸 수 있도록 모델링을 통해 지도함

정리하면,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다른 일상생활 활동은 거주시설이라는 특성보다는 장애라는 특성으로 인한 것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에 따른 행동이나 의료 중재 등이 관찰되어서, 장애정도에 따라 개별화되는 중재행동의 필요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 2) 장애인거주시설의 이용자와 생활재활교사의 상호작용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와 생활재활교사와의 상호작용을 Flanders의 언어 상호작용 분석법을 기초로 분류한 결과는 〈표 11〉 과 같다. 전체 하루의 일상생활행동 1,993건 중 39.7%가 교사와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증의 경우 33.1%, 중증은 29.9%, 최중증의 경우는 54.7%로 나타나 최중증의 경우 하루 생활의 절반정도를 생활재활교사와 상호작용 함을 알 수 있었다.

〈표 11〉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와 생활재활교사의 상호작용 정도

단위 : 빈도(건), 비율(%)

구분	전체		경증		중증		최중증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상호작용 전체	792	39.7	199	33.1	201	29.9	392	54.7
일상생활활동전체	1,993		601		676		716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와 생활재활교사의 상호작용 유형을 분석하면, 〈표 12〉와 같다. 언어적 상호작용은 전체 상호작용 중 65.5%, 기타 상호작용은 34.5%로 나타나 언어적 상호작용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12〉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와 생활재활교사의 상호작용 유형

단위 : 빈도(건), 비율(%)

구분	전체		경증		중증		최중증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언어적 상호작용	519	65.5	165	82.9	168	83.6	186	47.4
기타상호작용	273	34.5	34	17.1	33	16.4	206	52.6
전체	792	100	199	100	201	100	392	100

장애정도별로 살펴보면, 경증의 경우는 언어적 상호작용 82.9%, 기타 상호작용 17.1%로 나타났고, 중증은 언어적 상호작용 83.6%, 기타 상호작용 16.4%로 언어적 상호작용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최중증의 경우는 언어적 상호작용 47.4%, 기타 상호작용 52.6%로, 경증과 중증과는 다른 상호작용 패턴을 보여주었다.

언어적 상호작용과 기타 상호작용의 구체적인 패턴을 살펴본 결과는 〈표 13〉 과 같다. 우선 언어적 상호작용의 패턴을 살펴보면, 비지시적 발언 24.0%, 지시적 발언 76.0%로 비지시적 발언에 비해 지시적 발언이 3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지시적 발언 중 지도가 49.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지시는 25.4%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비지시적 발언으로 질문 8.8%, 느낌을 받아들이는 것 7.4%, 생각을 받아들이거나 이를 이용하는 것 4.9%, 칭찬이나 권장 2.9% 순으로 나타나 일상생활 상호작용 패턴의 많은 비중이 생활재활교사의 지도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표 13〉 언어적 상호작용 패턴

단위 : 빈도(건), 비율(%)

분류		전체		경증		중증		최중증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언어적 상호 작용	비지 시적 발언	1. 느낌을 받아들이는 것	39	7.4	25	15.1	12	7.0	2	0.8
		2. 칭찬 혹은 권장	16	2.9	6	3.4	9	5.3	1	0.3
		3. 이용자의 생각을 받아들이거나 이를 이용하는 것	26	4.9	12	7.2	9	5.3	5	2.4
		4. 질문	46	8.8	21	12.7	18	10.6	7	3.5
	소계		127	24.0	64	38.4	48	28.2	15	7.0
	지시적 발언	5. 지도 <sup>8)</sup>	252	49.1	66	40.5	74	44.5	112	61.2
		6. 지시	131	25.4	32	19.5	43	25.8	55	29.9
		7. 비난 혹은 권위를 부리는 것	9	1.5	3	1.6	3	1.5	4	1.9
	소계		392	76.0	101	61.6	120	71.8	171	93.0
	총 계		519	100	165	100	168	100	186	100

※ 언어적 상호작용은 교사의 발언을 기준으로 한 것임

8) Flanders의 언어적 상호작용 분류가 교육학에서 파생되어졌기 때문에 원래는 강의라는 항목으로 분류되어져 있다. 강의는 '학문이나 기술의 일정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여 가르침'이란 뜻으로 학습상황내에서 사용되어지는 용어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습 상황 이외의 가르침을 뜻하는 지도라는 용어로 변환하여 사용하려고 한다. 지도란 '어떤 목적이나 방향으로 남을 가르쳐 이끄는 것'이다(국립국어원, 2008).

장애정도별로 살펴보면, 경증의 경우 비지시적 발언 38.4%, 지시적 발언 61.6%로 나타났고, 중증의 경우는 비지시적 발언 28.2%, 지시적 발언 71.8%, 최중증은 비지시적 발언 7%, 지시적 발언 93%로 나타났다. 장애정도가 심해질수록 생활재활교사들의 언어적 상호작용 패턴이 지시적인 패턴으로 나타났고 특히 최중증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생활재활교사의 지시적인 상호작용 패턴으로 일상생활이 이루어져 상호작용의 패턴은 장애정도에 따라 상이함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지시적 발언은 지도, 지시, 비난이나 권위를 부리는 것인데 경증의 경우 지도 40.5%, 지시 19.5%, 비난이나 권위 1.6%로 나타났고, 중증은 지도 44.5%, 지시 25.8%, 비난이나 권위 1.5%, 최중증은 지도 61.2%, 지시 29.9%, 비난이나 권위 1.9%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체 언어적 상호작용 패턴 중 생활재활교사에 의한 지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장애정도가 심해질수록 지시의 형태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비지시적 발언은 경증의 경우 느낌을 받아들이는 것이 15.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질문 12.7%, 생각을 받아들이거나 이를 이용하는 것 7.2%, 칭찬 혹은 권장이 3.4% 순으로 나타났다. 중증의 경우는 질문 10.6%, 느낌을 받아들이는 것 7.0%, 칭찬 혹은 권장과 생각을 받아들이거나 이를 이용하는 것 5.3% 순이었다. 최중증의 경우는 질문 3.5%, 생각을 받아들이거나 이용하는 것이 2.4%, 느낌을 받아들이는 것 0.8%, 칭찬 혹은 권장이 0.3%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질문의 비율이 높고 칭찬 혹은 권장의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장애정도가 심해질수록 대부분 교사의 지도나 지시에 의해 일상생활 활동들이 수행되고 있고 이용자의 행동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을 받아들이거나 칭찬 혹은 권장을 하는 상호작용 패턴은 매우 빈약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다양한 상호작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인지 알아보하고자 각 영역별 상호작용의 내용 중 일부를 <표 14>에 제시하였다. '느낌을 받아들이는 것'은 교사가 이용자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대처하거나 먼저 다가가 인사를 하거나 고마움을 표시하는 등의 행동이 있었다. '칭찬이나 권장'은 이용자가 한 행동에 대해 칭찬을 해주거나 잘할 수 있다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행동들이 나타났다. '이용자의 생각을 받아들이거나 이를 활용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 대해 이용자의 생각에 대해 경청을 하고 이를 정리해주는 행동들이었고 '질문'은 어떠한 상황에 대한 판단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 이용자들에게 물어보는 방식을 취하는 상호작용 패턴들이 해당되었다. '지도'의 경우는 생활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행동들에 대해 교사의 생각이나 정보, 지식 등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상황들이었고 '지시'의 경우는 이용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용자들이 따르도록 하는 상황들이 포함 되어졌다. '비난 혹은 권위를 부리는 행위'는 주의집중을 촉구하고 주의를 주는 행동들이었다.

〈표 14〉 언어적 상호작용 패턴 내용 예시

분류		예시
비지시적 발 언	느낌을 받아들이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0가 학교에서 돌아오자 '00야 오늘 학교생활 즐거웠나'라고 물어보며 인사를 함</li> <li>목욕을 끝낸 후 교사가 생활인에게 도와준 일에 대해 고마움을 이야기함</li> <li>교사에게 커피를 마셨냐고 물어봐서 관심 가져 주어서 고맙다고 이야기함</li> <li>몸이 아프고 힘이 없다고 말을 해서 빨리 몸이 나아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해줌</li> <li>치과치료 대 위에 올라가는 것을 무서워해서 격려하여 다독여줌</li> </ul>
	칭찬 혹은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른 생활인의 잘못을 알려주고 고쳐주려고 도와주는 행동을 칭찬함</li> <li>스스로 속옷을 개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해줌</li> <li>프로그램에서 수행한 작업에 대해 잘했다고 칭찬을 해줌</li> <li>청소를 잘하고 있다고 칭찬한 후 조금 더 하면 끝나겠다고 이야기해줌.</li> <li>신발장에서 이용자가 신고 싶은 신발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꺼려하자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줌</li> </ul>
	이용자의 생각을 받아들이거 나 이를 이용하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족들과의 의견충돌로 힘들다고, 어떡하냐고 이야기해서 그건 당연하고 서로 이해 하고 맞추어가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얘기해줌</li> <li>이용자는 TV를 서서 시청하고 있었으나 이용자의 의사를 물어보고 적당한 이유 이면 그대로 두고 별다른 이유가 없으면 앉아서 편하게 보라고 권함</li> <li>왜 우느냐고 물어보니 풋볼대회에서 졌다고 해서 질수도 있는 거니까 다음에 이기하라고 이야기해줌</li> <li>내일 하고 싶은 일을 이야기 하길래 이용자가 하고 싶은 것을 정리해주고 그중 에 함께 선택하였음.</li> </ul>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음식물쓰레기를 버릴 것인지 물어봄</li> <li>날씨가 더운데 무엇을 입을지 물어봄</li> <li>궁금한 사항에 대해 물어보면 대답해줌</li> <li>직장에서 있었던 일을 질문하고 대답함</li> <li>등교 전에 기숙실에 오지 않은 이유를 물어봄</li> <li>식사를 하지 않고 있어서 먹기 싫으냐고 물어봄</li> <li>교사가 식당으로 혼자 내려가지 못하는 생활인을 도와줄 수 있는지 물어봄</li> </ul>
지시적 발 언	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밥 먹을 때 바른 자세가 중요한지 설명해주고 바른 자세로 앉아서 식사하도록 함</li> <li>식사 전 스스로 손을 씻을 수 있도록 이유를 설명, 지도함</li> <li>칫솔에 소량의 치약을 발라 적정량의 치약을 짜주며 바르게 양치하도록 지도함</li> <li>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만을 먹어 골고루 먹지 않으면 안 좋은 점에 대해 설명함</li> <li>방 한쪽 작은 공간을 지정하여 닦는 법을 지도하여 걸레질 할 수 있게 함</li> <li>소변지도도를 함</li> <li>불편한 자세로 TV와 컴퓨터를 사용하여 자세교정을 하라고 이야기해줌</li> <li>시간을 보는 법을 알려주고 프로그램에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함</li> </ul>
	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침에 일어나라고 이야기함</li> <li>씻고 왔는데 지저분해 보여 다시 씻고 오라고 이야기함</li> <li>먼저 식사를 해야 하니 교복을 갈아입고, 세수하고 손을 씻고 나오라고 지시함</li> <li>방청소가 안 되어 있어 청소하라고 이야기함</li> <li>교사가 “빠른 시간 내에 자리를 바꿔 줄 테니 얼른 식사하세요”라고 이야기함</li> <li>더 얇은 옷을 입고 나오라고 이야기함</li> <li>이미용 봉사자가 오는 날이라 머리 자르러 가라고 이야기함</li> <li>다들 식당에 갔으니까 얼른가라고 이야기함</li> </ul>
	비난 혹은 권위를 부리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식사 전 손 씻기를 하지 않아 교사가 주의를 줌</li> <li>교사가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간을 알려주며 주의를 줌</li> <li>큰 소리로 이야기 하여 작게 이야기하라고 주의를 줌</li> <li>교사가 안된다고 이야기하며 행동을 못하게 함</li> </ul>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나타나는 언어적 상호작용을 제외한 상호작용 패턴을 분석해보면 <표 15>와 같다. 여기에서 기타 상호작용은 신체적 도움 제공과 일방적 도움제공, 함께 하는 활동<sup>9)</sup>으로 구분된다. 신체적 도움은 이용자의 장애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약으로 인해 재활교사의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부분이다. 일방적 도움 제공은 거주 시설의 특성과 재활교사의 인식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상호작용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김미옥 외(2008)의 연구에 의하면 거주시설은 단체생활로 인해 개인의 욕구에 부응하기 힘들고 일정에 따라 움직이는 공동생활의 한계를 일부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직원의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으로 이용자에게 무조건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일방적인 지시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표 15> 기타 상호작용 패턴의 내용

단위 : 빈도(건), 비율(%)

분류	전체		경증		중증		최중증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기타 상호작용	신체적 도움 제공	126	46.2	12	35.3	10	30.3	104	50.5
	일방적 도움 제공	114	41.7	18	52.9	17	51.5	79	38.3
	함께 하는 활동	33	12.1	4	11.8	6	18.2	23	11.2
총 계	273	100	34	100	33	100	206	100.0	

분석 결과, 기타 상호작용 중 신체적 도움제공 46.2%, 일방적 도움 제공 41.7%, 함께 하는 활동 12.1%로 나타났다. 장애정도별로는 경증은 일방적 도움제공 52.9%, 신체적 도움 제공 35.3%, 함께 하는 활동 11.8% 순으로 나타났고 중증의 경우 일방적 제공 51.5%, 신체적 도움 제공 30.3%, 함께 하는 것 18.2% 순으로 나타났다. 최중증의 경우는 신체적 도움 제공 50.5%, 일방적 도움 제공 38.3%, 함께 하는 활동 11.2%로 나타나 최중증 이용자의 경우는 장애로 인해 재활교사의 신체적 도움을 많이 받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거주시설에서 재활교사와 이용자의 상호작용 중 언어적 상호작용을 제외한 기타상호작용 패턴은 재활교사가 이용자에게 일방적 도움을 제공하는 일이 절반정도로 나타나 이용자들의 의견이나 생각 등이 고려되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준다.

기타 상호작용의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면, <표 16>과 같다. 신체적 도움 제공은 신체적 장애나 지적능력의 저하로 인해 보행이나 식사, 일상생활 활동의 부족한 부분을 지원해주는 활동들로서 수저를 잡아주거나 단추를 채워주거나 바지를 내려주는 등 언어적 상호작용만으로 지원이 어려운 활동에 대해 재활교사가 신체적으로 도움을 주는 행동들을 말한다. 일방적 도움 제공의 경우는 이부자리를 정리해주거나 간식이나 식사 등을 차려주고 옷을 꺼내주거나 벗기는 등 이용자들의 의사와 관계 없이 교사들이 지원하는 행동들이다. 함께 하는 활동은 함께 청소를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는 등

9) 신체적 도움의 경우, 이용자의 장애로 교사가 부분적으로 신체적 도움을 주어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패턴을 말한다. 일방적 도움 제공은 이용자들이 스스로 하거나 부분적 도움으로도 수행할 수 있는 일상생활을 재활교사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함께 하는 활동은 일상생활 수행에 있어서 운동이나 여가생활, 청소 등을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활동을 같이 하는 행동들이 나타났다.

〈표 16〉 기타 상호작용 패턴 예시

분류		예시
기타 상호작용	신체적 도움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걸음걸이가 불편하여 식당으로 식사를 하러 가기 위해 보행을 지원함</li> <li>▪ 손이 불편하여 음식물을 많이 흘려 교사가 뒷처리를 함</li> <li>▪ 어금니 쪽은 양치질을 잘 못해 교사가 도와줌</li> <li>▪ 혼자 삼푸를 해보도록 했으나 결국 잘못해 전적으로 지원함</li> <li>▪ 식사를 할 수 있게 수저를 잡아주고 설렁탕을 식혀서 앞에 놓아줌</li> <li>▪ 생활교사가 소변을 볼 수 있게 바지를 내려줌</li> <li>▪ 생활재활교사가 기저귀를 갈아줌</li> <li>▪ 생활재활교사가 체위변경을 해줌</li> </ul>
	일방적 도움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부자리를 정리하고 자리를 살피줌</li> <li>▪ 저녁간식을 가져다 줌</li> <li>▪ 옷을 꺼내줌</li> <li>▪ 간식그릇에 챙겨주고 컵에 담아줌</li> <li>▪ 목욕을 시키기 위해 옷을 벗김</li> <li>▪ 음식을 흘려서 밥을 먹여줌</li> </ul>
	함께 하는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같이 세탁물을 가져감</li> <li>▪ 같이 운동장을 돌면서 산책을 함</li> <li>▪ 체조를 하자고 얘기하고 누워있어 손을 잡고 함께 내려감</li> </ul>

## 5.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거주시설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상호작용을 살펴보고자 24시간을 관찰·기록하는 생활 시간조사방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거주시설 장애인들은 같으면서도 다른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정도에 따라 경증장애인일수록 비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유사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으며, 비장애인과 다른 특이행동(전체 활동의 14%)으로는 손톱을 물어뜯거나 혼자 말을 하는 등의 행동 45.9%, 건강관련행동 25.3%, 섭식관련행동 11.2% 등으로 관찰되었다. 또한 생활재활교사의 중재행동은 일상생활활동 전체 중 약 33.4%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종증으로 갈수록 중재행동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시설 장애인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논의되는 생활 재활교사와의 상호작용 활동은 약 39.7%로 나타났으며, 이 중 언어적 상호작용은 65.5%, 기타상호작용은 34.5%로 조사되었다. 언어적 상호작용의 패턴으로는 지시적 발언이 76.0%로 이 중 지도나 지시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이는 최종증으로 갈수록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지시적 발언은 24.0%로, 질문, 느낌을 받아들이는 것, 칭찬 혹은 권장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기타 상호작용으로는 신체적 도움 제공이 46.2%로 가장 높았으며, 함께하는 활동은 12.1%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거주시설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상호작용과 관련된 몇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거주시설의 목적과 기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장애인거주시설은 '가정에서의 욕구가 제대로 충족 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 집단 보호와 치료'라는 목적을 갖는다. 또한, 생명보존 활동에 필요한 의식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일상적 보호 기능, 시설에 살고 있는 사람이 주체적이고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능 등을 수행한다(김미옥·정진경·김희성·최영식·

윤덕찬, 2006). 그러나 본 연구에서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분석한 결과, 일상적 보호기능과 관련해서는 비장애인과 유사한 형태를 보여주는 반면,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기능은 매우 빈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으로 개인유지 등의 영역은 비장애인과 유사하나, 일과 관련된 영역은 비장애인이 19% 인데 반해, 경증장애인이 1.7%, 중증장애인이 0.3%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거주시설이 장애인의 자립을 준비하는 장소로서의 기능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함을 알 수 있도록 해준다. 따라서 현재 보호적 기능이 우세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특히, 성인기이전 장애인들에게는 자립을 준비하는 주거장소로서 거주시설이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비장애인의 일상과 비교하였을 때 특히 부족한 영역은 의무생활과 여가생활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애정도에 따라, 일과 학습, 여가 등에 있어서의 다양한 기회의 제공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경증장애인에게는 고용 확대 등을 통한 의무생활시간의 확대, 최종장애인은 여가생활의 확대를 위한 노력이 요청된다. 이를 위해 기관 차원에서는 지역사회에서의 활동 확대 방안이나 시설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 연계, 시설의 소규모화 등의 구체적인 작업들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활발히 논의되는 주거와 치료기능의 분리, 즉, 거주시설은 주거를 제공하는 장소로, 기타 모든 재활관련활동이나 서비스는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셋째,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다른' 생활에 대한 접근 역시 고려의 대상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것처럼, 최종증으로 갈수록 특이행동이나 중재 행동이 많아져서 장애특성을 고려한 개별화된 지원들이 여전히 중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중재행동의 경우, 최종증은 47%, 경증은 33.4%로 나타나서, 이용자들의 자율적인 행동보다는 교사의 중재행동 비율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집단생활이라는 거주시설의 특성을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이 중재행동이 반드시 그 시점에서 필요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점검 혹은 장애인의 자기결정과 선택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한 연구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넷째, 상호작용과 관련해서는 지시적 발언(76.0%)이 비지시적 발언(24.0%)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지시적 발언을 줄이고, 비지시적 발언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지시의 내용 중 일부는 이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었으며, 기타 상호작용에서도 일방적 도움제공이 41.7%로 함께하는 활동 12.1%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거주시설 종사자의 의사소통, 상호작용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성, 이와 관련된 종사자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시설에서의 일상생활은 습관화되고 자동적으로 반복되어지는 일이라 생각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비성찰적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종사자들이 이용자와의 상호작용에 대해 인식하고 고민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교육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생활시설 이용자들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실제로 Flanders의 언어적 상호작용에 대한 교육을 받은 교사들이 학생들과의 관계가 증진되고 수업의 질이 향상되었으며 상호작용 수준이 높았다는 결과가 있다(김용하, 2008). 또한 시설의 환경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명 이상인 수업과 20명 이하인 수업을 비교했을 때 20명 이하인 수업에서 교사들이 비지시적 발언을 많이 했다는 연구결과가 있었다

(조인숙, 1990). 따라서 시설의 소규모화를 통한 이용자 대 종사자 비율 조정 등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거주시설 장애인의 일상을 살펴본 결과, 일상생활활동을 결정하는데 장애정도가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장애특성별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경증·중증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이나 재가장애인과 비교하여 부족한 부분의 활동을 증가시킬 수 있는 서비스 마련이 필요하며, 타인과의 생활에서의 감정조절이나 대화법 향상 등을 위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최중증 장애인의 경우, 개인유지, 신변처리 등 기초기술 활동 지원, 시설에서의 단순화된 활동에만 집중화되지 않도록 하는 지원 등이 매우 필요하다.

‘일상’이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보편적 현상이다. 매일 반복되기에 그 중요성이 때로 간과되어지나, 그 보편성 때문에 일상생활이 아니고서는 존재가 불가능한 필수적 속성이 있다. 본 연구는 거주시설 장애인의 일상을 들여다 본 최초의 연구로서, 중요한 기초 자료임과 동시에 향후 다양한 후속연구의 가능성을 제기한다. 우선, 생활시간조사를 활용하여 시설장애인의 일상생활활동과 상호작용을 양적 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인터뷰, 참여관찰 등을 포함하는 질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시설장애인의 삶을 보다 깊고 넓게 재조명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재가 장애인들의 일상, 생애주기별 일상의 모습 들은 어떠한지 관찰하여, 다양한 비교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일상생활연구는 바쁜 일상 가운데, 습관적으로 자동화되어 무엇이 문제인지 등에 대해 점검할 여백이 없는 우리 사회에 매너리즘과 관성으로부터 벗어날 것을 촉구한다. 이 연구가 성찰의 미학이 부족한 우리 사회에 장애인의 일상화된 삶을 깊이 들여다보고, 진정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겸허한 자세로 함께 논의하는 작은 시작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 강수택. 1996. “근대적 일상생활의 구조와 변화”. 『한국사회학』 32: 503-529.
- 강수택. 1998. 『일상생활의 패러다임: 현대 사회학의 이해』. 서울: 민음사.
- 국립국어원. 2008. 『표준국어대사전』.
- 김미옥·정진경·김희성·최영식·윤덕찬. 2006. 『장애인 생활시설 인권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국가인권위원회.
- 김미옥·정진경·김희성. 2008.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 연구 :장애인당사자와 종사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3: 389-422.
- 김민혜. 1990. “교사 관심에 의한 수업형태 및 교사-학생의 언어적 상호작용”.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용하. 2008. “플랜더스의 수업분석 방법에 따른 지체부자유학교 초등부 교사의 언어상호작용 분석”. 대구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중서. 1980. 『교수 과정의 분석』. 서울: 교육 과학사.
- 김중서·김영찬. 1970. 『수업형태분석법』. 서울: 배영사.
- 김철수. 2005. “장애인복지시설의 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내 요인에 관한 연구 : 2004년 평가결

- 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22 : 207-230.
- 김현정. 2003. “우리나라의 유아의 일상생활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학과 박사학위논문.
- 노경주. 1999. “교사-학생 상호작용에서 교환되는 교실 언어의 유형 연구”. 『교육사회학연구』 9(2): 97-119.
- 박수미. 2007. “한국 고령자의 생활시간사용에 있어서의 젠더차이: 일, 무급가족노동, 여가를 중심으로”. 『여성연구』 72: 5-30.
- 박순호·김은숙. 1998. “취업주부의 일상생활의 시, 공간적 특성”. 『한국인구학』 21(2): 113-143.
- 박영도·은기수·김복수·오만석·김정석·이윤석. 2005. 『한국인의 생활시간과 일상생활: 일상생활의 쟁점』. 한국학중앙연구원.
- 박재환·이상훈 역. 1997. 현대를 생각한다 : 이미지와 스타일의 시대. Michel Maffesoli, 1996. The Contemplation of the World: Figures of Community Style. 서울 : 문예출판사.
- 박재환·일상생활연구회. 2008. 『일상생활의 사회학적 이해』. 서울: 한울 아카데미.
-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거주시설의 혁신방안. 내부자료. 2007.
- 서경희·변찬석·전현선·진홍신·신윤희·최미향. 2004. “장애인생활시설의 일상생활기록을 통한 요구 분석”.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43(1): 99-120.
- 성숙진·유태균·이선우 역. 199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Rubin and Babbie, 1993. Research Methods For Social Work. 서울 : 나남출판.
- 신현기. 2003. “교사와 장애아동간의 학급 내 상호작용 특성에 관한 문헌분석”. 『특수교육저널 : 이론과 실천』 4(4): 445-463.
- 오세란. 2005. “생활시설 장애인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재활복지』 9(2): 29-52.
- 유병주. 2004. “성인정신지체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주거서비스의 변화”. 『특수교육학연구』 30(3): 163-185.
- 윤혜성. 2008. “교사의 역할수행에 있어서 인격적 상호작용의 중요성에 관한 연구”. 『교육의 이론과 실천』 13(2): 149-175.
- 이명신. 2003. “Flanders의 언어 상호작용 분석법을 이용한 영어 유치원 수업 형태 분석”.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철우·김은숙. 1997. “일상 생활활동 연구의 이론적 배경과 연구동향”. 『사회과학』 9: 133-158.
- 장혜경·홍승아·이상원·김영란·강은화·김고은. 2006. 『가족내 돌봄노동 실태조사』. 한국여성개발원.
- 정수복. 1996. “한국인의 모임. 일상문화연구회(편)”. 『한국인의 일상문화: 자기성찰의 사회학』 47-60. 서울 : 한울.
- 조인숙. 1990. “Flanders 언어모형에 의한 교사-아동의 언어적 상호작용 분석”.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남숙·유소이. 2002. “청소년의 시간사용 실태와 결정요인 분석”.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6(1): 1-16.
- 통계청. 2005. 『2004 생활시간조사보고서』.
- Alexnader, W. 1998. “Collaborative learning through high-level verbal interaction : From theory to practice.” *The clearing House* 72 : 58-61.
- Blatt, B. Confessore, S. Kallenberg, G. and Greenbers, L. 2008. “Verbal interaction analysis : Viewing



- feedback through a different lens." *Teaching and Learning in Medicine* 20(4): 329-333.
- Catherine, E. 2001. "Knowing what we know : Children, teachers, researchers." *Educational Research* 30(7): 3-9.
- Forrester-Jones, R, Carpenter, J, Cambridge, P, Tate, A, Hallam, A, Knapp, M, and Beecham, J. 2002. "The quality of life of people 12 years after resettlement from long stay hospitals: users' views on their living environment, daily activities and future aspirations." *Disability and Society* 17(7): 741-758.
- Krippendoff, K. 2004. *Content Analysis : An introduction to its methodology*.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 Inc.
- Offir, B, Barth, I, Lev, J, and Shteinbok, A. 2005. "Can interaction content analysis research contribute to distance learning?" *Educational Media International* 2(2): 161-171.
- Parkes, D. and N. Thrift. 1980. *Times, spaces, and places : a chronogeographic perspective*. Wiley, New York.
- Pred, R. 1979. "The academic past through a time-geographic looking-glass."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69: 175-180.
- Robinson, J. P. and Godbey, G. 1997. *Time for Life: The Surprising Ways Americans Use Their Time*. University Park, PA: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 Seltz, M, Almedia M, Greenberg S, Salva, J, Stawski, S, Hong and Taylor, L. 2009. "Psychosocial and biological markers of daily lives of midlife parent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50: 1-15.
- Shores, E, Jack, L, Gunter, L, and Ellis, N. 1993. "Classroom interactions of children with behavior disorders." *Journal of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1: 27-39.
- Turner, H. J. 1991. *The Structure of Sociological Theory*, Belmont: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 Weber, P. 1990. *Basic content analysis*.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 Wilhite, B. 1994. "Outside voices : The daily experiences of japanese with disabilities in later life." *Educational Gerontology* 20(8): 783-796.

## A Study on Daily Lives of the Disabled in Residential Facilities -Focusing on Daily Life Activities and Interactions by the Daily Time use Method-

Kim, Mi-Ok

(Chonbuk National University)

Kim, Go-Eun

(Ewha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daily lives of the intellectually disabled living in residential facilities. The daily time use method that monitors and records 24 hours of the subject was used for the analysis of daily lives of the institutionalized disabled and verbal interaction patterns within each facility. In particular, the analysis focused on 'frequency of activities' and 'lives', with the method of time budget. Based on the activity category table of the 2004 nationwide Time Use Survey, the analysis aimed to identify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between the non-disabled and the disabled in terms of daily time use. The interaction pattern analysis method on grounds of the Flanders Category system(1963) indicates the level, the type, and the full details of interaction between the institutionalized disabled and the living rehabilitation teachers. This study is all the more significant in that it monitored the daily lives of the institutionalized disabled for the first time to allow in-depth understanding about the daily lives of the disabled; analyzed interaction patterns between the institutionalized disabled and living rehabilitation teachers; applied time budget study method, a frequently used one in adjacent fields, and therefore should serve as a valuable source material for future studies.

Key words: disabled living in residential facilities, disabled people, user daily lives, interaction, time use survey

[논문 접수일: 09. 10. 08, 심사일: 09. 10. 27, 게재 확정일: 09. 11. 06]